

이중원 출마의 변

저는 금번 2020-2021년도 한국철학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의 이중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철학계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간 치열한 경쟁으로 대학에서 많은 철학과들이 사라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강력해진 경제 논리는 철학을 위시한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여 철학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유전자 편집 아기, 인공지능의 등장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인간 정체성의 혼란과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철학적 사유의 지침을 시의 적절하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철학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척해 나가려는 철학자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은 여전히 지역별 모임, 분야별 모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이 빚어낸 인간학적 문제들-가령 인간과 기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포스트 휴머니즘의 도래, 인간 사회의 공유가치와 새로운 윤리 문제들-과 이의 철학적·윤리학적 대응에 대해 우리 철학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철학은 2,500여년을 이어 온 인류 지성의 보고입니다. 인간의 사유가 또는 삶 자체가 어떤 큰 장벽에 부딪칠 때마다, 철학은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지혜와 혜안을 주었습니다. 서양의 경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했고, 데카르트가 그러했고, 칸트가 그러했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것을 시대적 요청에 철학이 시의 적절하게 응답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류 사회가 처한 현실과 이에 내재돼 있는 철학적 문제의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철학자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와 철학이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철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철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저의 학문적 이력이나 활동 경력들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부끄럽게도 역량의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어 공언할 만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철학이 지닌 의미와 소중함을 사회와 공유하고, 한국 철학계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널리 알려 개선하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모든 철학 연구자들과 후학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작으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짧은 재임

기간인지라 전·현임 회장님들과 뜻을 한데 모아 다음의 세 가지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시대에 대한 철학적 진단 및 대응에 관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론화하여, 철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 정부기관 등과의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학부 철학교육 진흥과 철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한국 철학계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 이 모든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한국의 철학자들이 모두 함께 한뜻으로 모여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공동학술대회(기존의 한국 철학자 연합대회 계승)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철학회 회원여러분! 저에게 한국철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 철학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이 닿는 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철학 연구자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3월 4일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이중원 드림